

이선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불어의 과거와 완료의 의미가치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박 윤 미

불어의 과거와 완료의 의미가치 연구

이선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박 윤 미

인 준 서

박윤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불어의 과거시제인 단순과거/복합과거/반과거를 완료/미완료 accompli/inaccompli로 설명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완료가치에 대한 Franckel의 이론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여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II장에서는 전통적 방식과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운 Kamp & Rohrer, Molendijk의 불어 과거시제들에 대한 정의 및 용법의 설명들도 살펴봄으로써 '완료'라는 개념이 단지 시제, 상, 양태에 의해 정의되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완료'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인 상aspect과 사행의 양태mode de procès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완료와 관계된 다양한 용어들, 완료/미완료accompli/inaccompli, 완성/미완성perfectif/imperfectif 그리고 완료성/완수성accomplissement/achèvement 개념까지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상aspect과 사행의 양태mode de procès의 개념이 정리되었다면 Culioli가 말한 양적한정작용opération de quantification:QNT과 질적인 한정작용을 하게 하는 질적한정작용opération de qualification:QLT과 관계하여 사행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본다.

III장에서, Franckel에게 의하면 '완료'의 개념은 사행의 개념체 영역domaine notionnel의 내부를 구조화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Culioli는 개념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념체 영역domaine notionnel이란 한 개념체

notion를 표상할 수 있는 여러 출현소들로 이루어진 영역un domaine d'occurrences d'une notion이다. 즉, 언어활동langage중에 화자의 뇌리 속에서 전개되는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현상인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언어외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론적인 개념이다.

Franckel에 있어서 '완료'라는 개념은, 주관적으로 설정된 것과 시간적으로 위치 결정된 것이 일치됨으로써 나오는 가치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종래의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 불어의 과거시제인 복합과거의 첫 번째 가치로 꼽혀온 '완료'라는 개념은, 화자의 주관성을 중시하는 언술행위 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는 Franckel의 시각에서 달리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관성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과거의 완료상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법표지로서 나타난다.

첫 째는 전형에의 동일화 작용Identification à un étalon이고 두 번째는 <행해진 것>과 <행할 것>간의 일치관계Conformité entre le <fait> et le <à faire>이며 세 번째는 추론관계의 이론Problème de relation de l'inférence이다.

다음으로 그는 완료를 목적보어의 한정작용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다. Franckel은 사행의 양적한정작용과 시간적 위치결정작용이 서로 무관하게 행해질 때, 사행의 외재성Extensité du procès을 구축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나의 언술이 있을 때 사행의 출현소가 구축되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데, 이 때 사행의 출현소는 두 가지 연결 방식에 의해 구축된다.

하나는 주관적 차원에서 유효가능한 것과 시간차원에서의 위치결정된 것 간의 일치관계가 성립할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개념적인 분할작용découpage에 의해 사행의 양이 한정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Culioli도 형식적 속성을 논한 바 있었던 결과적 상태를 그는 완료의 개념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다. 완료 혹은 복합과거에 대해 논하면서 결과적 상태보다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언술행위주체가 획득한 (결과적)상태acquis de changement d'état>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불어의 '완료'의 연구를 시제, 상, 사행의 유형의 세 가지 영역에만 한정되어 비교분석함으로써 불충분하고 부족하던 부분을 위와 같이 Franckel이 제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다 명확하게 설명된다는 것은 언어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불어 과거의 의미가치 비교 분석	4
1. 불어의 과거 시제	5
1.1. 반과거	5
1.2. 단순과거와 복합과거	6
2. Kamp & Rohrer에 있어서의 과거시제 비교	8
3. Molendijk에 있어서의 반과거	12
III. 불어 완료의 의미가치 비교분석	18
1. 사행의 양태mode de procès와 상aspect	18
2. 완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21
2.1. 완료accompli와 미완료inaccompli	21
2.2. 완성perfectif과 미완성imperfectif	26
2.3. 완료성accomplissement과 완수성achèvement	32
3. Franckel에 있어서의 완료의 의미가치	35
3.1. 사행의 양적·질적 한정작용QNT·QLT.....	35
3.2. 완료accompli의 문제	41
3.2.1. 전형에의 동일화작용	42
3.2.2. <행해진 것>과 <행할 것>간의 일치관계	43
3.2.3. 추론관계의 이론	44
3.3. 사행의 외재성Extensité과 완료	45
3.4. 결과적 상태Etat résultant과 완료	46

IV. 결론 50

참고문헌
RESUME

도식 목차

<도식1> 복합과거동사의 시간적 관계	9
<도식2> 시간적 순서	11
<도식3> 결과적 상태	47

I. 서론

불어에서는 과거를 가리키는 시제가 다른 언어보다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시제들마다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언어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불어의 과거시제의 고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지는 불어의 과거 시제인 단순과거/복합과거/반과거의 개념 및 용법을 전통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다른 한 가지는 단순과거/복합과거/반과거를 Franckel을 통한 '완료'라는 개념의 의미가치와 관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불어의 직설법에서 반과거와 복합과거, 또한 반과거와 단순과거등은 과거의 사실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시간대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법적 특성을 파악하려면 상의 대립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II장은 이들의 연결관계의 성질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흔히 불어 시제의 단순형과 복합형의 대립은 완료상/미완료상aspect accompli/aspect inaccompli과의 대립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불어 동사시제 형태들의 단순형과 복합형은 상의 차이로 설명되며, 단순과거, 복합과거, 반과거의 대립도 상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최근 문맥에 나타나는 단순과거와 반과거의 대립이 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ichenbach의 영향을 받은 Kamp & Rohrer는 “동사 시제는 그것이 나타나는 문장과 그것이 있는 텍스트나 담화에 선행하는 문장들 사이에 세워진 시간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단순과거와 반과거의 법칙을 세웠다. 그러나 Molendijk는 반과거가 이들이 제시했던 법칙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해석과 용법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단순과거/복합과거/반과거라는 과거시제의 비교분석에 있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aspect과 사행의 양태mode de procès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III-1)이며 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완료/미완료의 개념을 Guillaume, Vendler를 통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III-2).

슬라브어에서는 완료/미완료accompli/imaccompli의 개념에 있어서, 완수사행procès accompli는 완성형태forme perfective로 미완수사행procès achevé는 미완성형태forme imperfective로 나타내고 있다. 용어상의 혼동을 고려하여 accompli/imaccompli는 완료/미완료로, perfectif/imperfectif는 완성/미완성으로 표기하며, 그 외의 용어들은 언어학자들이 사용하는 대로 따르기로 한다.

완료/미완료의 개념에 있어서 Guillaume은 새로운 시간개념인 α 와 ω 시간유형을 도입해 과거의 개념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Vendler는 동사의 형태를 상태état, 완료성accomplissement, 행위activité, 완수성achèvement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완료accompli라는 개념을 비교분석한다.

Guentchéva는 완료성/완수성accomplissement/achèvement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태, 과정, 사건의 세 가지 유형의 사행의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완료/미완료>의 관계까지를 흡수하고 있다.

또한 Maingueneau는 완성/미완성의 개념을 도입해 완료/미완료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언어행위를 위해 시간성과 결부시켜,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체계에 관해, 문장 속에서 그 변화 형태에 따른 내재적인 의미를 들여다 볼 때 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므로 불어시제에서의 완료상의 의미가치를 Culioli의 언술행위적 좌표이론의 틀 안에서 Franckel의 이론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Franckel에 의하면 ‘과거’라는 가치는 시제 형태소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문맥에서 오는 것이고 상을 나타내는 가치 중의 하나인 완료인데 이것은 시제형태소나 완료/미완료적 의미 가치가 아니라 문맥과 시제 형태소가 함께 복합해서 나오는 것이 완료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Culioli의 개념체영역domaine notionnel이라는 기술적, 도구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불어의 시제 연구는 시제, 상, 사행의 유형의 세 가지 영역에만 한정해서는 부족하고 보충적으로 이들 영역간의 연접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 범주의 문제는 시간의 영역인 순간부류classe d’instant의 영역과 더불어 서술관계의 영역이라는 두 가지 큰 영역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한편 과거시제들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전과거parfait antérieur, 대과거plus-que-parfait들을 빼놓을 수 없으나 반과거, 복합과거, 단순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전자들은 기준시를 각각 달리하는 상대시temps relatif에 속하므로 본고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우리는 être동사가 조동사로 수반되는 복합과거는 Denis Creissels를 통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으나 복합과거의 부정이나 의문형 등과 같은 형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II. 불어의 과거의 의미가치 비교분석

불어는 과거 동작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그 동작의 양태나 동작에 대한 말하는 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반과거, 단순과거, 복합과거의 3 시제*tiroir*를 활용할 수 있다.

시제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선상의 동작을 설정하는 반과거, 단순과거, 복합과거의 서로 다른 점은 결국 그 각각의 시제가 동작을 어떤 양태로 파악하게 해주며, 그리고 발화행위*énonciation*와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세 시제를 상과 시제의 대립관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문법에서 시제를 단순히 현재, 과거, 미래로 동사시제의 형태와 그 가치를 고착시킨 것은 문제시 된다.

과거라는 개념은 언술행위 상황 요소들의 관계 내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형태라도 주어진 문맥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문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반과거의 시제적인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이는 반과거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과거시제이고, 과거시제라는 가치에서 다른 모든 용법들이 발생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는 반과거, 단순과거와 복합과거 그리고 반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1. 불어의 과거시제

1.1. 반과거

전통문법에 따르면 반과거는 미완료상을 갖는 대표적인 시제로서 반과거로 서술된 상황은 원칙적으로 시작과 끝의 경계 없이 고찰되며, 과거에서의 상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화자의 moi-ici-maintenant¹⁾과 관련해서 반과거의 차이décalage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 간격이라는 것은 배열 안에서 양태, 시제적, 언술행위를 책임지는 것으로 의식하도록 만들어주거나, 또는 과거로의 시간적인 간격의 표현이 유추에 의해 양태나 또는 책임지는 것으로 전이가 가능한데 이 두 관점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랑그 안에서 반과거의 간격은 전적으로 시제에 속하게 된다. 왜냐하면 언술행위와 다른 범주로서 책임지기 또는 상적 범주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과거는 담화 속에서 현재 대

1) P. Le Goffic는 반과거가 근본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형태소’가 아니며 ‘미완료 inaccompli-확실성 영역 certain-비현재 non-présent’를 나타내는 시제인데, 반과거는 동사에 의해서 나타난 사행을 문맥적으로 한정된 참조적인 틀cadre référentiel에 위치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반과거가 상적가치valeur aspectuelle로는 미완료의 가치를 나타내고 양태적 가치valeur modale로서는 확실성영역을 나타내고 좌표 결정의 차원에서는 화자의 비현재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반과거가 화자로부터 구성되는 ‘나-여기-지금moi-ici-maintenant’과의 관계에서 간격décalage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1986참조) P. Le Goffic의 ‘나-여기-지금 moi-ici-maintenant’의 개념은 A. Culioli에게 있어서는 S와 T를 그 구성요소로 갖는 언술행위 상황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간격은 To와 To’사이의 거리와 같은 개념이다. 한편 ‘나-여기-지금moi-ici-maintenant’이라는 화자의 공간과의 간격이 각기 다른 문법 범주에 적용됨을 볼수 있는데, A. Culioli에게 있어서 Sit(S,T)는 문법 범주를 초월한 기술적 용어이며 S가 양태범주, T가 시상범주를 나타낸다.

신 사용하는 과거로서 기능하는 특수한 과거 시제이다. 현재와 반과거는 동일한 상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반과거가 과거 속의 현재로 쓰일 수 있으나, 미완료 시제인 반과거는 기준 시점에 의거하여 해석되는 불완전한 시제라는 점에서 현재 시제와 차이가 있다. 미완료상을 표현하는 반과거는 혼자서는 사용될 수 없고 복합과거나 단순과거와 연결되어 사용된다. 간접화법이나 자유 간접화법의 종속절 안에서 반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절 동사가 과거이고 직접적인 발화내용을 간접화법으로 전환시킬 때 직설화법의 현재시제를 반과거로 대체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하자.

Le lion a dit: 《Je dévore force moutons》

Le lion a dit qu'il dévorait force moutons

이런 이유로 반과거를 <과거속의 현재>라고 한다. 이런 점을 Damourette & Pichon은 반과거가 과거의 중심에서 그 중심에 실재의actuel 가치를 제공하는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설법 현재와 같은 실제적 느낌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²⁾

1.2. 단순과거와 복합과거

단순과거와 복합과거는 상적으로 동일한 완료의 상을 가지며, 구어에서는 복합과거가 단순과거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흔히 복합과거가 단순과

2) “...l’expression linguistique choisit un centre différent du moi-ici-maintenant, mais en gardant la faculté de prêter à ce centre une valeur actuelle, c’est-à-dire d’y infuser la notion d’une durée vécue;” Damourette et Pichon, op.cit.,p.405

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이 두 시제가 각각 서로 대립되는 요소를 통해 나타나는 문장도 있다.

복합과거가 단순과거와 대체되는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Lucie a préparé le repas qui a bientôt été servi.

Lucie prépara le repas qui fut bientôt servi.

위 예문에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를 보면, 전자의 복합과거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며, 후자는 결과를 제외한 행위를 나타낸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발화자가 단순과거나 복합과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수신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에 결정된다. 또한 단순과거는 정신적으로 현재의 개념과 일치되지 않는다.³⁾ 그러므로 문장에서 복합과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사행을 정신적으로 담화 실행에 결부시키며 행위의 특징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복합과거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실재이며, 발화행위의 순간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단순과거와 복합과거는 문장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대립되는 시제로써 발화자가 어떤 시제를 쓰는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즉 단순과거는 현재의 개념과 상응하지 않는 반면, 복합과거는 정신적으로 담화 실행과 결부되어 과거를 나타낸다.

이제 전통문법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불어 과거시제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언어이론들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3) 복합과거의 경우에도, 엄밀하게 말하면 선행성을 나타낸다고 해도 현재와의 관련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문어에서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낼 때에는 대개 단순과거를 사용한다. 이 단절은 시간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단절을 뜻할 수도 있다.

전성기, 불문법의 이해, 태진출판사(199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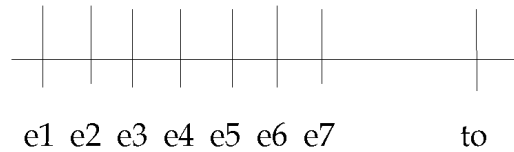
2. Kamp & Rohrer에 있어서의 과거시제 비교

Kamp & Rohrer는 Reinchenbach의 주장을 이어 받아, 말하는 순간, 문장을 통해 보고된 사건이 진실로 여겨지는 동안의 순간, 이 사건이 고찰된 순간이라는 세 가지 좌표에 입각한 동사 시제의 분석을 제시했다. Kamp & Rohrer에 따르면, 동사 시제의 의미는 동사시제가 나타나는 문장과 동일한 텍스트나 담화 안에서 그 문장을 선행하는 문장 사이에 세워진 시간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복합과거나 단순과거의 연속은 그것들이 나타나는 시간의 순서 속에서 이야기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전통적 이론들이 시제들이 각 사건이 말하는 순간을 선행한다는 것을 표현할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Kamp & Rohrer은 그 시제들이 단순히 각 사건이 말하는 순간을 선행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안의 사건들이 일정한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Vite, docteur, dépêchez-vous. Mon mari a pris(e1) deux cachets d'aspirine, il a avalé(e2) sa lotion contre les aigreurs d'estomac, il s'est mis (e3) un suppositoire contre la grippe, il a pris (e4) un comprimé à cause de son asthme, il a mis (e5) des gouttes dans le nez, et puis, il a allumé(e6) une cigarette. Et alors, il y a eu (e7) une énorme explosion.》⁴⁾

위 예문에서의 복합과거 동사는 다음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e1~e7은 각 사건을 나타내고, to은 발언의 순간을 나타낸다.

4) C. Vetters(1993:17)



[도식 1]

위의 예문에서는 복합과거가 연속적으로 쓰여 사건들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과거도 이와 같이 사건들의 순서를 표현하고 있다. Kamp & Rohrer는 단순과거의 사용에 대한 다음의 규칙을 제안한다.

- i) 단순과거는 발언의 순간(to)을 선행하는 새로운 사건 e를 도입한다.
- ii) e는 이미 도입된 마지막 사건 뒤에 온다.

그러나 단순과거와 관계하여 Kamp & Rohrer은 이 법칙에 세 가지 예외가 있음을 지적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a) Marie chanta(e1) et Pierre l'accompagna(e2).
- b) L'année dernière Jean escalada(e1) le Cervin. Le premier jour il monta(e2) jusqu'à la cabane H. Il y passa(e3) la nuit. Ensuite il attaqua(e4) la face nord. Douze heures plus tard il arriva(e5) au sommet.
- c) L'été de cette année-là vit(e1) plusieurs changements dans la vie de nos néros. François épousa(e2) Adèle, Jean-Louis partit(e3) pour le Brésil et Paul s'acheta(e4) une maison à la campagne.⁵⁾

a)에서 두 사건들은 연속적이지 않고, 동시적인 것이다. Kamp & Rohrer(1983)에 의하면, 그것은 평행한 두 사건으로 구성된 하나의 사건에 해당된다.

5) Ibid, p.18 재인용

b)는 단순과거가 있는 처음의 사건이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기술되는 것을 보여준다. e2-e5의 일련의 사건들은 e1을 명시하고 e2는 e1에 후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e2-e5의 일련의 사건들이 연대기적 순서로 이야기되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건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순서를 명확히 하기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c)에서 우리는 e2, e3, e4가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결정하기 힘들다. 이 세 가지 예외적인 것들에 근거하면서, Kamp & Rohrer는 단순과거의 규칙을 변화시킨다.

- i) 단순과거는 to를 선행하는 새로운 사건 e를 도입한다.
- ii) 단순과거에 의해 도입된 사건은 완전히 지칭점point de référence의 기능을 하는 사건이나 시간을 선행할 수 없다.

c)의 예문은 e3 또는 e4가 e2를 선행한다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도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에 만족한다. a, b, c에 나타난 세 경우를 모두 설명하는 위의 법칙은 앞선 법칙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Vetters는 역시 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한다. 다음의 a, b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관계있는 절의 단순과거는, 사건이나 지칭점의 기능을 갖는 시간을 완전히 선행하는 한 사건을 도입할 수 있다.

- a) En 1982, il s'installa dans la ville même où Charles Martel arrêta les Arabes. Il y rencontra son épouse future.
- b) Il me présenta au joueur qui marqua les trois buts contre la Belgique.⁶⁾

위의 개선된 단순과거의 용법에 의하면, arrêta와 marqua는 각각 단순과거가

6) Ibid, p.1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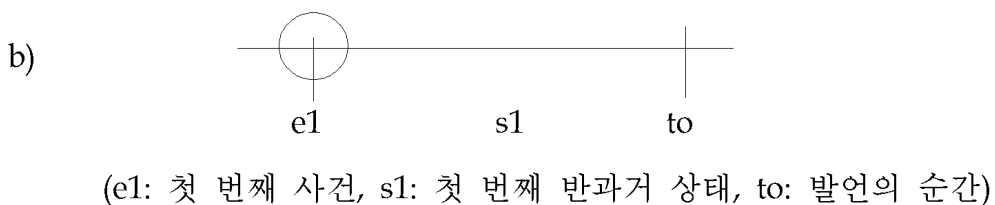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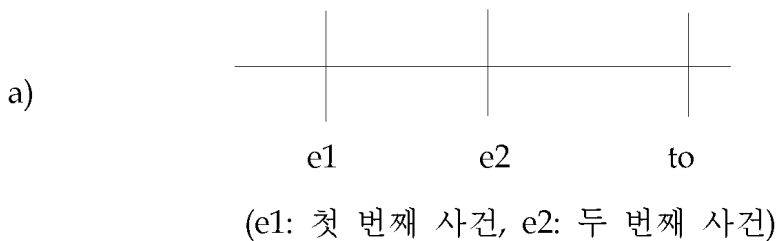
있는 마지막 사건, *s'installa*와 *présenta*를 완전히 선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단순과거는 지칭점의 기능을 갖는 시간이나 사건을 완전히 선행하는 사건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또 다른 예외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Kamp & Rohrer의 단순과거 용법에 대한 분석은 단순과거의 다양한 용법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Kamp & Rohrer가 제시하고 있는 반과거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Kamp & Rohrer는 반과거는 이와는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단순과거와의 차이점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a) Quand Pierre *entra*(e1), Marie *téléphona*(e2)

b) Quand Pierre *entra*(e1), Marie *téléphonait*(s1)

a)에서 두 사건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b)에서 Marie는 이미 Pierre가 들어올 때 전화를 하는 중이다. 위의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2]

도식 a, b가 주어질 때 Kamp & Rohrer의 반과거 법칙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i) 반과거의 문장은 새로운 상태 S를 도입한다.
- ii) 이 S의 상태는 t_0 의 순간보다 먼저 위치한다.
- iii) 이 S의 상태는 단순과거의 문장에 의해 도입되는 마지막 사건 e와 관계한다.

기본적으로 동사 시제의 의미는 동사 시제가 나타나는 문장과 동일한 텍스트나 담화 안에서 그 문장을 선행하는 문장사이에 세워진 시간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Kamp & Rohrer의 단순과거 반과거 법칙을 통해 우리는 단순과거는 역동적인 사행을 나타내며, 반과거는 이야기를 뒤쳐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순과거는 지칭점을 오른쪽으로 전개하는 반면, 반과거는 마지막 사건의 지칭점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전체적으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과거는 Kamp & Rohrer가 제시했던 법칙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해석과 용법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Molendijk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3. Molendijk에 있어서의 반과거

Molendijk는 기본적으로 반과거가 완료의 시제와 관련되는 조응의 시제 *temps anaphorique*라고 주장한다. 그는 반과거의 문장이 함축적 시간적 선행사에 의거하며, 문장의 선행사는 시간 선행사 뿐 만 아니라 비시간적 언어학

요소들에 의해 제시된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반과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과거가 있는 문장은 단순과거가 있는 문장이 시간적으로 내포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동시에 반과거가 있는 문장에 의해 보고된 사실의 지칭점은 이 사실의 내부에 놓여진다. 다음의 예를 보자.

Reste ici, tu es en sûreté dis-je à ma femme(P1) et je me mis à courir vers l'hôtel du Chien-Tigré(P2). Je courais de toutes mes forces(P3), car...⁷⁾

즉, 위의 예문에서 P3의 반과거 'courais'는 P2의 단순과거 'se mettre à courir'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달리기를 시작한 순간을 시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P3의 반과거는 단순과거 P2에 의해 보고된 사실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놓이는 상황 속에 수신자를 놓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반과거가 있는 문장은 단순과거 시제에 의해 제공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준다. 다음의 예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i) Il se leva(P1) et gravit lentement la pente(P2). Il titubait comme un homme ivre(P3)
- ii) (Pendant...), les gazettes publièrent des panégyriques du défunt(P1) où l'on vantait(P2) sa sagesse, sa prudence, et cent autres qualités qu'il n'avait jamais eues(P3)⁸⁾

7) A. Molendijk(1985:82)

8) Ibid, p.84

i)에서 P3의 반과거는 il로 지칭된 사람이 경사를 오르는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국 이 두 문장에서 반과거로 제공된 사실들이 차지하는 시간적 공간은 단순과거로 제공된 사실이 실제인 것으로 여겨지는 동안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반과거가 제공한 사실의 지칭점은 단순과거로 보고된 사실이 차지하게 되는 기간의 내부에 놓여진다.

셋째, Molendijk는 Kamp & Rohrer의 반과거 법칙⁹⁾과 같이, 반과거 문장이 새로운 지칭점을 도입하지 않는 법칙은 옳바르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밝히고 있다.

Je continuait ma route(P1). Juste à l'entrée de la ville de Georges, il y avait un certain nombre de soldats en petite tenue élevant une longue barricade devant un canon(P2). Plus loin, à Thionville, un groupe d'hommes était en train de déménager une maison(P3). La peur se lisait sur leurs visages(P4). La ville de Graz, à 5 kilomètres de Thionville, était pleine de confusion(P5). Il y avait des chariots, des voitures partout(P6). Les gens honorables de l'endroit se hâtaient de faire leurs paquets, énergiquement aidés par tous les fainéants(P7).¹⁰⁾

위의 예문에서 je라고 지칭되는 사람은 길을 떠나면서 Georges, Thionville, Graz의 세 도시를 지나간다. 그는 Georges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가 이 도시를 통과하는 순간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하며, 마찬가지로 Thionville, Graz에서 일어난 상황도 그가 문제의 도시들을 지나가는 계속되는

9) Kamp & Rohrer는 반과거의 법칙에서 반과거는 단순과거가 있는 문장에 의해 도입된 마지막 사건을 포함함으로써 그것의 지칭점으로 단순과거가 있는 마지막 사건만을 취한다고 보았다.

10) Ibid, p.86

순간과 두 시간 장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한다. 여기서 je라고 지칭되는 사람의 시야에 주목한다면, 반과거의 특성은 우리를 사행의 시간 속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e의 시선이 이동되면서 새로운 반과거의 지칭점이 도입됨과 동시에 지칭점이 이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과거는 단순과거가 있는 마지막 사건 외에 새로운 지칭점을 도입할 수 없다는 Kamp & Rohrer의 반과거 법칙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넷째, 반과거가 있는 문장은 수신자를 그것이 차지하게 되는 시간적 공간의 내부에 위치시킨다. 이것은 반과거의 내적 시각에 속하는 것으로, 불어의 반과거를 강조하는 내적 관점은 반과거가 있는 문장을 통해 보고된 사실 또는 이 사실에 의해 전제된 것뿐만 아니라, 반과거로 이야기된 일련의 사실들을 구성하는 총체에 관련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Ce que je vis alors(P1) est indescriptible(P2). Ayant complètement perdu la maison, un jeune homme se jetait par la fenêtre(P3). Une jeune homme, préférant une mort subite à des souffrances terribles, se poignardait(P4). Un vieillard, essayant de fuir, trébuchait(P5) et tombait inanimé sur le sol(P6).
..11)

위의 예문을 통해 보고된 내용은 전개 중인 것으로 여겨지는 광경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 광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여기서 P3~P6의 이야기는 각각의 독립된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체적인 사건을 구성한다.

11) Ibid, p.91

다섯째, 반과거로 이야기된 사실의 지칭점은 비시간적 요소나 비시간적 요소가 포함된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제시된다. 이것은 다음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호함을 설명해 준다.

Il se mit à raconter son histoire(P1). Il conduisait une Mercedes(P2).

위의 예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 P2에 의해 보고된 것이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il에 의해 지칭된 사람이 Mercedes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il conduire...'는 'il se mettre à raconter...'의 과거 속에 놓여지고, P1의 단순과거가 지칭하는 순간보다 이전인 것으로 여겨진다. 후자의 경우는 'il conduire'는 시간적으로 'il se mettre à raconter...'가 진실인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을 포함한다. 이런 해석에 의거하면, 'il conduire'의 지칭점은 P1에 의해 지칭된 순간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반과거로 이야기된 사실의 지칭점은 단순과거에 의해 도입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를 보자.

Jacques leur dit(P1) qu'il ne regrettait pas d'avoir détruit le XB.23(P2). Il avait raison de penser ainsi(P3). Le XB.23 constituait un grave danger pour l'humanité(P4).¹²⁾

위의 예문에서 반과거의 지칭점은 앞선 예문과는 달리 비시간적 요소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XB.23은 첫 번째 문장에 의해 지칭된 과거 속에 위치하는 순간 t에 위험을 설정하는 중이다. 또 이 순간 t는 P4로 이야기된 사건의 지칭점을 구성한다. 이 순간은 P1의 내부에 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로 우리는

12) Ibid, p.92

XB.23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반과거의 지칭점은 비시간적 요소 즉, "Jacques leur dit"라는 문장이 지칭하는 과거 속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반과거는 시간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시간적 요소나 그것이 포함되는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Molendijk는 반과거의 특성을 문맥적 차원에서 그것의 지칭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에 의하면, 반과거는 Kamp & Rohrer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복잡한 시제로서, 반과거의 지칭점은 시간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시간적 요소에 의해 제시되며, 단순과거인 마지막 사건만을 지칭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칭점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반과거는 상적으로 어떤 한계를 내포하지 않는 미완료상으로, 용법에 있어 여전히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과거 시제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불어의 완료 개념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본 '완료'라는 개념이 이렇듯 단지 시제, 상, 양태에 의해 정의되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Franckel의 이론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Ⅲ. 불어 완료의 의미가치 비교분석

1. 사행의 양태와 상

불어과거시제인 단순과거/복합과거/반과거에 따른 단순형태와 복합형태의 대립은 무엇보다도 각각 미완료와 완료사이의 상적인 대립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이 시제들의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에 대한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이라는 용어는 본래 러시아어의 'вид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19세기 초 슬라브 언어 문법 기술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게르만 언어 기술에 쓰이게 되었다. 상 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언어인 러시아어는 완성상aspect perfectif과 미완성상aspect imperfectif의 대립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 개념은 불어에도 도입되어 상의 분류에 관하여 많은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상을 구분하는 학자로 Duchàček는 상을 “동사의 전개에서나 완료에서 행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¹³⁾ 그에 따르면 상은 동사의 의미에 달려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서 반과거를 제외하고 aller, aimer, courir와 같은 동사들은 늘 미완료상을 야기하고, 완료의 상은 accourir, atteindre, trouver...와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사의 대부분은 이런 특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불어 동사 형태들을 상적인 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의 개념보다는 하위의 개념인 사행의 양태에 의해 그 특질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은 가장 복잡한 언어학 영역중의 하나로 사행의 양태와 자주 혼동된다. 각각의 동사는 그 의미작용을 통해 그것이 표현하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13) C. Vet(1980:46)

지시한다.¹⁴⁾ 예를 들어 'éclater'는 순간적인 사행을 전제로 하고 'dormir'는 지속적인 사행을 전제로 한다. 이런 의미론적인 특징들을 문법학자들은 '사행의 양태' 혹은 '동작의 양태'라 부른다. 사실상 사행의 양태는 어휘의 범주인 반면 상은 문법적인 범주이다. Maingueneau는 상과 사행의 양태를 구별하여 "상의 범주는 분명히 지각되는 능기를 통해 특징 지워지는 대립 요소들의 폐쇄적 체계로 제시되나, 사행의 양태는 어휘체계의 구조 속의 수많은 의미 차이들에 관련된 상대적으로 열린 체계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⁵⁾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과 사행의 양태에 관한 몇 가지 분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Duchàček은 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사행의 양태의 범주를 도입해 행위의 단계나 강도의 표현이 전개되는 방식에 따라 행위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13가지로 구분 짓는다:

순간성momentané, 지속성duratif, 계속성continuatif, 점진성progressif, 종결성terminatif, 결과성résultatif, 임박성imminent, 반복성itératif, fréquentatif, 배증성multiplicatif, 배분성distributif, 강화성intensif, 완화성atténuatif.¹⁶⁾

반면 Maingueneau는 이러한 사행의 양태와 완료, 미완료등과 같은 상의 측면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사행의 양태가 동사의 의미에 의해 부여된다면 상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발화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과거시제 표현에서 발화자가 marchait미완료상 또는 marcha완료상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상적 현상의 연구는 발화체énoncé 총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성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과 사행의 양태를 혼동하지 않고 이 두 범주들이 서로 밀접

14) D. Maingueneau(1981:46)

15) D. Maingueneau(1984:62)

16) Ibid, p.47

하게 관계함을 역시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붙어 동사 형태들이 상적인 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의 개념보다는 사행의 양태에 의해 그 특질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서 서로 보완적인 상과 사행의 양태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보도록 한다.

먼저 다음의 언술들을 관찰해 보자.

(1a) Jean a marché pendant une heure.

(1b)*Jean a marché en une heure.

(2a) J'ai lu ce livre pendant deux heures.

(2b) J'ai lu ce livre en deux heures.

(1a)는 각각 용인가능한 언술인 반면에 (1b)는 용인가능하지 않은 이유와, (2a)와 (2b)의 차이를 단순히 시간적 위치결정작용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결국 상 이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사행과 상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행의 양태와 상에 대한 이해는 언어학자에 따라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Klum(1961), Vet(1980)등은 사행과 상을 완전히 단절된 즉, 중복되지 않은 대립관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의 언어학 이론들은 대개 이 의견을 따르고 있다. 그런가하면 사행과 상을 굳이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이 사행과 상은 통일된 개념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Milner에 의하면 사행과 상의 차이는 잠재적 지시체계*référence virtuelle*와 실제적 지시체계*référence actuelle*의 분명한 대립관계로 환언된다.

2. 완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Franckel에게 있어서 완료의 개념은 사행의 개념체 영역¹⁷⁾의 내부를 구조화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완료라는 개념은, 주관적으로 설정된 것과 시간적으로 위치 결정된 것이 일치할 이름으로써 나오는 가치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관성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완료상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법표지로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은 III-3.2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완료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완료accompli와 미완료inaccompli

먼저 Maingueneau가 완료/미완료accompli/inaccompli와 관계되어 붙어 과거시제들을 분류한 것을 살펴본 후 완료/미완료와 비교해 완성/미완성 perfectif/imperfectif(III-2.2.)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Maingueneau와 견해를 달리하는 Guillaume의 이론도 살펴보도록 한다. 반과거와의 상적 대립에서만 살펴 볼 때 단순과거와 복합과거는 완료상을 표현한다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복합과거만의 상과 시제의 의미를 다시 살펴 볼 때, 복합과거는 이중의 가치를 갖게 되므로 단순과거와 구별되어야

17) 개념체 영역domaine notionnel이란, 하나의 개념체notion의 표상가능한 여러 경우들로 이루어진 영역un domaine d'occurrences d'une notion이다.

A. Culioli는 개념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un système complexe de représentations constitué à partir d'un faisceau de propriétés physico-culturelles”

A. Culioli(1982); Rôle des représentations métalinguistiques en syntaxe.

즉, 언어활동langage중에 화자의 뇌리 속에서 전개되는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현상인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언어외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활동langage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론적인 개념이다.

함은 분명하다. 즉, 복합과거는 상과 시제의 가치를 둘 다 갖게 되는데 Maingueneau는 복합과거가 현재의 완료를 나타냄과 동시에 또 과거의 미완료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¹⁸⁾

그러나 시제적 관점에서 복합과거가 미완료로 쓰인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단순형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¹⁹⁾

"Il a dormi"라는 언술을 살펴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의 완료이다. "Il a dormi"가 미완료로 쓰여진다는 것은, il dort와 같이 현재 그 결과를 드러내 주는 단순형의 의미로 현재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Il"이 머리가 아파 잠을 잘 수 없다면 이 때 "Il a dormi"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다시 말해 아프지 않으므로 잠을 자고 있다는 현재의 미완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Il a dormi"라는 완료가 있으므로 현재의 결과를 가지는, 하나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행위동사verbes d'activité와 함께 쓰여져 복합과거를 이루는 경우 완료가 사행이 완료되었다는 것만을 꼭 의미하지 않음을 살펴보자.²⁰⁾

a) Voila, il a écrit sa page(accomplissement)

b) Il a pleuré des heures, et il continue(activité)

a)에서는 사행이 이미 끝났으나, b)에서는 형태상으로 보아 사행이 완료된 완료상이나 continuer의 사행의 양태 때문에 완료성의 가치가 완화되어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국 복합과거의 용법에 있어 문맥을 떠난 복합과거는 모호해질 우려가 있기도

18) D. Maingueneau(1981:51)

19) Ibid, p.32

20) Ibid, p.50

하며 사행의 양태와 완료상 사이에는 교류가 있음이 더불어 확인된다. 복합과거의 문맥에 따른 차이가 나는 예문을 보자.

a) Paul a lu hier tout le livre que je lui ai prêté.

b) Paul a lu un livre toute la journée.

여기에서 a)는 Paul이 어제 내가 빌려준 책 한 권을 모두 다 읽었다는 '읽기'의 출현소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lire 사행의 완료성accomplissement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b)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책을 읽었지만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읽는 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같은 사행이라도 그 언술의 다른 요소로 인하여 사행의 상적 가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사행의 출현소가 구축되었는지 아니면 사행이 현동화만 되었는지에 따라 언술의 의미가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문법에서는 직설법 과거시제로 단순과거, 복합과거, 반과거를 들고 있으나, 복합과거는 시제적 의미와 상적 의미로 보아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행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주는 현재의 확장상이었다. 또 단순과거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어느 시기에 완전히 끝나버린 행위나 사실을 나타내며, 반과거는 과거에 계속되던 행위나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완료되지 않은 사행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들을 보기로 하자.

a) Maintenant, j'écoute chanter les oiseaux.(현재의 미완료)

b) J'ai dormi, je me sens bien.(현재의 완료)

c) Il écrivait.(미완료, 과거의 미완성)

d) Il écrivit.(완료, 과거의 완성)

a)와 b)의 예는 Guillaume와 Maingueneau가 단순형과 복합형의 대립을 통해 보여준 완료와 미완료의 상적 대립이다. c)와 d)는 동사의 문법적 시간성의 의미에 의한 구분으로 Maingueneau에 의하면 현재의 미완료상을 표시 할 때는 현재시제를, 과거에 있어서의 미완료상을 나타낼 때는 반과거가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 완료를 나타내는 복합과거와 현재에 있어 미완료를 나타내는 현재는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게 되며, 과거의 한 시점에 있어 완전히 끝나버린 사행으로 보아 완료를 나타내는 단순과거와 과거에 있어서 미완료를 나타내는 반과거가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Guillaume는 이와 견해를 달리함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²¹⁾ 그는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이 반과거의 미완료성을 그 특성으로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단순과거의 미완료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또 반과거에서 완료성이 드러남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해 단순과거의 동작이 오히려 반과거보다 완료의 의미가 덜함을 보여 주고 있다.

a) Pierre s'était levé et marchait.

b) Pierre se leva et marcha.

a)의 예문에서 볼 때 marcher는 부분적으로 완료와 미완료가 둘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marcher의 동작에 있어 과정의 일부는 이미 이루어진 완료이면서 또 그 행위 자체는 미완료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21) G. Guillaume(1970:61-62)

b)의 예문에서 marcher는 그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즉, marcher의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오히려 이미 부분적으로 완료는 아니다 라는 것이다. Pierre가 걷기 시작했다는 정보는 주고 있으나 특정한 문맥에 의한 한정어 제시되지 않는 한 그 걷는 행위는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그는 b)의 예문의 marcha를 commença à marcher로 파악하고 있다. 즉, 그는 단순과거로 제시되는 사행을, 사행이 시작되는 순간을 전망적인 기준점으로 하여 그 끝으로 방향성을 가진 시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시제가 언술행위의 시점에서 기술되는 사행을 표현해주는 반면 반과거는 과거의 기준시점에서 기술되는 사행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시제이다.

다음 두 예문을 먼저 비교해 보자.

a) Paul dormit

b) Paul a dormi

b)와는 달리 a)는 불완전하고도 불안정한 미결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면 어떤 기준점을 거기에 덧붙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Paul dormait quand je l'ai vu.

반과거는 과거의 어떤 시점을 기준점으로 정했을 때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행위의 묘사에 일반적으로 쓰인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그 과거의 기준점을 드러내 주는 것은 바로 je l'ai vu이며, 단순과거와 복합과거는 다른 시제의 시간

적 상황에 대한 도움이 없이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반면 반과거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불완전하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반과거는 단순과거, 복합과거와 함께 이루는 하위체계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텍스트는 같은 측면 위에 놓여진 단순하고도 연속적인 문장들로만 쓰여 질 수 없기 마련이며 복합과거와 반과거 또는 단순과거와 반과거가 함께 결합되어 서술을 이루게 된다. 행위와 행위의 잇따른 연속을 나타내는 데는 단순과거형태가 쓰이며 반과거는 상적인 측면에서 과거 시점과 상관관계가 있는 과거의 현재형으로 열린 사행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자.

Il pleuvait quand il arriva.

위의 예문에서 <pleuvoir>의 사행은 과거에 국한되어지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연장되어지면서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 열려있으면서도 단순과거의 역동적 사행의 표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2.2. 완성perfectif과 미완성imperfectif

사행의 단계를 시작, 중간, 끝의 세 가지 양상으로 볼 때, 그 사행이 종결점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눈다. 완료상은 사행이 시작되어 이미 끝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반대로 미완료상은 사행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행이 아직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나타낸다.

Je suis tombé(완료상)

Je marche(미완료상)

그런데 이 미완료상의 경우 그 의미 가운데 끝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러한 차이에 따라 완성상/미완성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Martin(1971:53)은 지적하고 있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상을 구분하는 학자인 Guillaume은 의미적 측면에 근거하고 있음에 반해, 전통적으로는 불어의 상을 복합시제는 완료로 단순시제는 미완료로 나누는 형태적 구분에 근거하여 완료와 미완료accompli/inaccompli, 또는 완성성과 미완성성perfectivité/imperfectivité으로 나누고 있다.²²⁾

이제 Maingueneau가 완성perfectif와 미완성imperfectif에 대해 내리는 구분을 보자. 이 구분에 대해서 그는 완성상은 사행을 전개의 모든 단계phases 안에서 외부로부터 포착되는 분할할 수 없는 전체로, 말하자면 한정된 순간에 나타나는 점으로 나타나며(이런 이유로 단순과거를 점괄적ponctuel이라 한다) 미완성상은 사행의 시작과 끝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사행의 전개에 있어서 내부에서 포착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단순과거와 반과거의 대립을 종종 <외부에서의 관점/내부에서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반과거 안에서 인식되는 실제적 부분은 매우 뚜렷하지만 단지 동사 이미지의 일부분으로만 확장되는 반면 단순과거 안에서 실제적 부분은 반과거보다는 덜 뚜렷하지만 동사 전체의 이미지로 확장된다. 따라서 단순과거와 반과거의 대립을 완성/미완성로 볼 수 있다

완성/미완성을 정의하는데 있어 먼저 하나의 가설을 전체로 한다. 완성/미완

22) D. Maingueneau(1984:65)

성의 대립은 어떤 한 상황의 내재적 시간 구조와 α 로서 동일시되는 지칭점 사이에서 관계되어 설명된다는 것이다. 미완성은 완성이 상황의 외부에 놓여진 α 라는 지칭점에서부터 내재적 시간 구조를 파악하는 반면, 이런 상황에 대한 처음/마지막의 경계와는 상관없이 상황의 내부에 놓여진 α 라는 지칭점에서부터 어떤 한 상황의 내재적 시간 구조를 파악한다.

Comrie에게 있어서 붙어는 유일한 어떤 한 시기로만 이해되며 과거의 가치에 대한 반과거, 단순과거와 복합과거가 있는 것은 이 유일한 시기 안에서이다. 그것은 이 동사 형태들의 어떤 한 상황, 상태, 행동이나 사건이 과거와 관계를 가진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의 구도 위에서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생긴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과거의 동사들이 아래의 예처럼 일종의 선행성을 표현하는 듯하다.

Hier, je me réveillai, me levai et pris mon déjeuner.

그러나 선행성에 대한 해석은 문법적 형태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담화 속에서의 사건의 선적 표현이라든지, 사건들의 시퀀스적 논리를 전개한다. 게다가 과거형과 반과거의 차이는 시제의 문제가 아니라 상의 문제라고 Cox(1994)는 설명하고 있다.

Comrie는 완성/미완성의 대립을 «상황의 내재적 시간 구축의 관점에 따른 다른 방식»²³⁾으로 정의한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은 다른 여러 방식으로 어떤 한 상황의 내재적 시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반과거 사이의 대립은 화자가 과거 속에서 상황 위에 놓여진 완성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배열하는 어떤 문법적 방식이다. 붙어 교과서에 묘사된 문법에서, 우리는

23) «different ways of viewing the 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 of a situation» (B. Comrie., 1976:3)

반과거의 사용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접하게 된다:

«정신적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들(*penser, savoir, vouloir, espérer*), *avoir, être* 동사 그리고 *devoir* 동사는 일반적으로 반과거를 사용한다.»²⁴⁾

과거(형)에서 *savoir*와 *connaître*라는 동사의 사용이 매우 특수하고 명확한 의미라는 이유로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할지라도 문법 속에서 보여지는 설명들은 이 동사들이 왜 아래의 예처럼 우리가 완료적 완성의 상황 위에서 미완료적 완성 상황을 지날 때 명시적인 의미 변화를 보이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 a. Je connaissais Jean quand j'étais jeune.
- b. J'ai connu Jean quand j'étais jeune.(j'ai rencontré Jean)

그것들은 어떤 양태 동사 속에서는 더 이상 매우 섬세한 의미의 뉘앙스와 일치하지 못함의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 한다.

- a. Je pouvais faire mon devoir.
- b. J'ai pu faire mon devoir.

Comrie가 어떤 상황을 매우 간단히 말했듯이 어떤 한 동사는 행동, 사건이나 상태를 표상한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시간 속에서 전개된다. 다시 말해,

24) «Les verbes qui indiquent un état d'esprit(*penser, savoir, vouloir, espérer*) et les verbes *avoir, être* et *devoir* s'emploient généralement à l'imparfait.»(Baker & al, 1990:135)

모든 상황은 시간을 갖는다. 어떤 한 상황이 순간적일지라도 그것은 시간을 차지한다. 이 시간은-어떤 한 상황의 내재적 시간-공간에 대한 용어로 보여 질 수 있다. Guillaume는 또한 상황의 내재적 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상한다:

«marcher라는 동사가 있을 때, 뛰어 넘을 수 없는 A와 B라는 경계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가깝고도 먼 A와 B사이에서, marcher라는 동사는 하나의 선으로 표상될 수 있다.»²⁵⁾

시간 속에서의 이 기간은 시작, 가운데, 끝을 보여 준다. 그리고 또 두 경계들 사이의 가운데는 순간에 관한 무한수로 분리될 수 있다. Guillaume의 표현에서, A의 경계는 marcher이라고 부르는 상황의 시작을 나타내고 B는 그것의 끝을 나타낸다.

모든 상황은 이 내재적 시간 구조를 가정한다. 상황의 전개는 경계들 사이에서 어떤 한 순간에서부터 또 다른 순간까지 상황의 실존에 의해 행해진다. 순식간에 나타나는 상황은 무한히 짧은 때조차 어떤 기간을 가지며 이 구조를 보여준다. 풍선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대기 중에 던져지면 연속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러나 물리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짧은,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아닌 풍선의 궤도 속에서 무한히 짧은 구간이 존재한다고 가르킨다. 풍선과 같은 어떤 한 상황은 무한히 작더라도 시작을 멈추고 더 이상 닿으려고 시작하지 않을 때조차, 순간들의 무한수로 나뉠 수 있는 어떤 한 구간을 갖는다. 만약 완성/미완성의 대립이 상적이라면, 우

25) «Prenons[...] le verbe **marcher**, et dans la vue de ne le considérer que pour le temps qu'il contient intérieurement, inscrivons-le entre deux limites A et B qui ne seront pas franchies. Entre ces deux limites A et B, supposées aussi proches ou aussi éloignées que l'on voudra, le verbe marcher peut être figuré par une ligne.» (G. Guillaume, 1984:15)

리는 완성/미완성의 차이는 내재적 시간 구조와 화자가 상황을 감지하는 방법인, a라는 지칭점의 위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라는 가설을 형성할 것이다.

Cox²⁶⁾는 완성/미완성의 대립이 종결/미종결의 대립이라는 가설을 주장했으며 미래를 향한 현재만큼 과거를 향한 반과거의 사용을 비교하면서 이 대립의 예들을 들었다.

Si ta mère te demande où tu les as eues, dis-lui que c'est faux...

Alors, j'ai envoyé mes hommes à l'Hôtel Excelsior...

Puis, elle est descendue pour téléphoner...

게다가, 어떤 한 상황이 존재할 때 그 상황은 마지막을 달성했다는 것을 내포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존재 한다.

Il a réussi son examen d'espagnol.

우리는 쉽게 이 동사들을 특징화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음도 본다.

*Il a commencé à réussir son examen d'espagnol.

따라서 결과는 완수l'achèvement를 내포한다. 또, 다음의 예문을 보자:

26) 1982 자료참조

- a. Il se noyait.
- b. Il s'est noyé.

À huit heures hier soir, il s'est noyé dans une rivière와 같은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상황의 마지막을 나타내지 않으며 뒤따르는 죽음을 향한 삶을 위한 투쟁의 중간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는 어렵다.

또 il mourait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존속한다면 어떤 죽음을 내포할 수 있다고 보지만, il est mort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하지 않고 차라리 상황의 완수로 이해한다.

2.3. 완료성accomplissement과 완수성achèvement

이미 살펴본 사행의 양태와 상의 개념을 결부시켜보면, 결국 사행의 양태에는 내재적 완료성의 개념이, 상에는 완수성의 개념이 각각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이 정리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완료성과 완수성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런데 불어의 동사에는 완료 또는 완수의 표현이 문법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태적인 차원에서 분별해 낼 수가 없다. 사행의 양태의 차원에서는 내재적 완료성²⁷⁾의 개념이 상의 차원에서는 언술적 완성성 즉, 완수성achèvement²⁸⁾의 개념이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해 보자. 많은 언어학자들은 사행의 양태의 차원에서 <완성/미완성>의 대립관

27) 완료성은 완료/미완료를 말하며 완수성은 완성/미완성을 말한다.

28) <Achèvement>이라는 용어는 Vendler가 도입한 용어인데 perfectivité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것이나 용어상의 차별을 두기 위해 perfectivité는 완성성이라는 용어로 해석하기로 한다.

계를 논하고 있으나 Vendler는 내재적 완료성과 완수성의 구별은 지속성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내재적 완료성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지속성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반면에 완수성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시간 축 위의 <일정한 구간>개념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²⁹⁾

이제 완수성과 완료성의 개념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에 관한 기본적인 몇 가지와 Vendler(1967)에 의해 소개된 네 가지 동사 형태, 다시 말해 '행위 activities', '완료성 accomplishments', '완수성 achievements', '상태 states'라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Guentchéva에 의한 완료/완수의 개념도 고찰해 보도록 한다.

Vendler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사는 상태의 가치일 뿐 아니라, 과정 processus의 가치로도 기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문맥 contexte 속에서 가벼운 변형을 가져온다. sauter/sautiller 동사가 그 예에 속한다. Vendler에 의해 상태 동사들로 분류된 understand와 know 동사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다음의 두 예 속에서는 첫 번째 문장은 행위를 두 번째 문장은 완수를 나타냄을 본다:

I'm understanding more about quantum mechanics as each day goes by
And then suddenly I knew!

다음으로, Vendler는 상태 état와 완수성 achèvement을 비교한다. 그들은 그에 의하면 두 부류로 나타나는 동사들은 계속적 현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부류genus》를 형성한다.

29) Accomplishments, (...) imply the notion of unique and definite time periods(...) Achievements involve unique and definite time instants. (Z. Vendler., 1967)

그러므로 《완수》를 나타내는 텍스트 속에 보여진 모든 동사들은 진행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He is winning the race.

Vendler의 완료성accomplissement와 완수성achèvement의 구분은 명확히 지식의 개념 위에 기초한다.³⁰⁾

《완료》에 관계된 부류 속에서 나타나는 동사들은, 《완수》와 같이 분류되는 동사들이 처음이든 순간이든 있을 수 있는 명확한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지속적이다.

다음으로 Guentchéva는 완료accompli와 완수achevé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한다. Guentchéva는 완료accompli와 완수achevé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태, 과정, 사건등의 사행의 유형을 기본개념으로 전제하고 특히 사건의 개념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바로 완료accompli와 완수achevé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Guentchéva에 따르면, 모든 사행은 하나의 역동적인 상황situation dynamique이다. 정태적인 상태에 이질성이 개입되어서 구축된 과정이 그 진행도중에 포착되었을 때 사행은 미완료inaccompli되었다고 말한다.³¹⁾

결과적으로, 상태, 과정과 사건은 기본적 개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개념이 잘 이해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시

30) Z. Vendler(1967:107)

31) Elle écoute la météo à la radio. 라는 언술을 고려해보자. 이 언술은 사행이 진행 과정 중에 있으며 사행의 시간성이 언술행위순간과 일치함을 나타낸다. 반면에 진행 중이던 사행이 차단되었을 때는 미완수된 채로 단지 종결된 사행, 또는 완수되어 종결된 사행이 나타날 수 있다.

말해 완수성의 개념concept d'achèvement과 완료성의 개념concept d'accomplissement이 도입되어야 한다.

3. Franckel에 있어서의 완료의 의미가치

3.1. 사행의 양적·질적 한정작용QNT·QLT

Culioli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언어학의 대상을 랑그로 축소하였던 것과는 달리 자연어와 언어활동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언어학을 파악하려 했다. 언어 활동langage과 개별언어들langues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언어학이 비언어학적인 것과 반드시 관계되는 중첩된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중첩된 부분lieux hybrides의 현상들을 통합하여, 언어적 자질과 비언어적 자질을 동시에 함축할 수 있는 하나의 추상적 도구로써 개념체notion를 상정한다. Culioli는 개념체를 “물리 문화적 특징들의 총체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표상체계”³²⁾로 정의한다.

개념체로부터 언어학자는 형식적 속성을 갖추고 있는 개념체영역domaine notionnel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는 반드시 출현소occurren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출현소는 하나의 속성의 시간과 공간에서의 표명으로, 언술적 사건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의 상황을 통한 좌표결정으로 이해된다. 출현소에는 현상적 출현소occurrence phénoménale와 언어학적 추상적 출현소occurrence abstraite가

32) A. Culioli(1986:85-86)참조,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개념체를 취했을 때, 이 개념체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물이나 어휘단위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의 총체”라는 것이다.

있다.

현상적 출현소란 현상 속에 있는 그대로의 혼질적인 속성être hybrique을 가지는 사물내지 생명체가 그 대상이 되는 영역이다. 언어학적 도구가 되는 상위언어 속성을 갖는 추상적 출현소도 바로 이런 현상적 출현소를 바탕으로 하여 구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언어학적 추상적 출현소를 바탕으로 하는 시·공간적 한정 작용을 하게 하는 양적한정작용opération de quantification:QNT 과 질적인 한정작용을 하게 하는 질적한정작용opération de qualification:QLT 이라는 두 연산 작용에 의해서 개념체 영역은 구조화 된다.

개념체 영역에 어떤 하나의 출현소를 구축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출현소와 시·공간적으로 구별하여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의 출현소에 의해서 상황적인 좌표결정repérage situationnel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이때 이 출현소는 상황적 출현소occurrence situationnelle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une table라고 했을 때 이는 탁자의 질이 같으나, 그렇지 않느냐와는 무관하고, 하나의 탁자가 시·공간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탁자와 구별, 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체 영역에 가해진 상황적 좌표결정은 양적한정작용에 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개념체 영역에 구조화가 일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질적한정작용에 의해서이다. 질적한정작용은 구성중심출현소centre organisateur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être chien/를 예로 들 때, 우리가 "chien"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언어사용자의 머리 속에는 개에 대한 일정한 영상이 있게 되며 눈앞에 떠오르는 대상에 대한 여러 종류의 언술을 생산하게 된다. 그 같은 여러 언술을 통해 눈에 보이고 셀 수 있는 개별적 대상으로서의 개를 넘어서 추상적이고, 중심 잡혀진 개념체notion centrée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성중심출현소centre organisateur³³⁾를 상징하는 것이다.

앞서 개념체영역의 출현소 구축에 있어서 양·질적한정작용의 두 가지 방법으로 그 한정작용이 가해짐을 보았다.

그런데 어휘단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개념체 영역을 한정하는 QNT와 QLT의 한정작용의 관계가 서로 다르게 조작됨을 파악하여, 이산형 discret, 밀집형 dense, 비이산형 compact이라는 세 유형의 개념체 영역의 구현 incarn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사substantif의 이산형의 범주, 밀집형의 범주 그리고 비이산형의 범주를 바탕으로 Franckel은 동사의 영역에 이를 적용시켜 사행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어휘단위가 전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거나 범주화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서 이산형, 밀집형, 비이산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I. 이산형

출현소 구축이 QNT와 QLT의 분리 가능한 이중적 제한으로 일어날 때 이 어휘단위의 개념체 영역은 이산형의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명사 영역에서 un chien이라고 할 때 이는 /être chien/이라는 개념체 영역을 구성하는 구성중심소("전형적인 개" "개다운 개"를 구성하는 출현소)에 질적으로 동일화 연산작용이 내재적으로 이루어져서, 고양이나 사자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게 하는 질적 한정작용에 의한 한정작용을 받는다. 그 다음 시·공간적인 한정작용을 받아 /être chien/의 개념체 영역의 출현소 부류 중

33) Centre organisateur는 centre attrateur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속성을 완벽하게 나타낸 것, 즉 전형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ex) "être livre"→"Ça, c'est ce que j'appelle un livre!"

34) J.J. Franckel, D. Paillard, S. De Vogüé(1987), pp.11-37

그 어느 하나의 출현소를 추출하는 양적 한정작용에 의한 한정작용을 받는다.³⁵⁾ 이 개념체 영역의 조작적, 형식적 세 가지 유형은 명사에 그 기원을 두지만 동사영역으로 일반화 할 수 있다. 동사 영역에서 예를 들면 *casser*, *déchirer*, *sortir* 등과 같은 것이 이산형의 특징을 갖는다.³⁶⁾

II. 밀집형

한 어휘 단위의 개념체영역의 출현소의 구축이 양·질적인 한정작용과 양립가능할 때 이 어휘단위는 밀집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밀집형은 이산형과는 달리, 외재적 표지를 그 매개체로 하여 두 한정작용과 양립가능하다. 외재적 표지는 양·질적인 한정작용과 관련하여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양적 한정작용을 나타내는 분류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질적 한정작용을 나타내는 품질형용사이다.³⁷⁾

따라서 이산형 특징의 개념체 영역의 출현소는 시·공간적 좌표결정에 앞서 질적으로 내재적인 형상화가 있는 반면에 밀집형 특징의 개념체영역의 출현소들

35) 우리는 여기서 질적인 구별과 양적인 제한이 서로 분리할 수 없이 함께 일어남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내재적 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36) 이산형 *discret*, 밀집형 *dense*, 비이산형 *compact*라는 이 개념은 처음에는 명사영역에만 적용되었지만, S. De Vogüé에 의해 사형의 영역에까지 분석범위가 확장되었다. 어휘 단위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출현소가 구축되고 따라서, 양적·질적 한정작용간에 성립되는 여러 관계들에 대한 제약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이 바로 <이산형/밀집형/ 비이산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S. De Vogüé, 1989)

37) 예를 들어 밀집형 명사 *une eau*은 이산형 명사 *un chien*하고는 달리 외재적 표지를 필요로 한다.

-une bouteille d'eau

un verre d'eau

-une eau pure

une eau minérale

une bouteille de, *un verre de*는 분류사로서 물의 양을 측정하게 하는 양적 한정작용이 일어난 경우이고 *pure*, *minérale*은 물의 질을 제한해 주는 질적 한정작용이 일어난 경우이다.

은 미리 형상화되어서 내재된 전형(물다운 물, 진짜 물)의 부재를 구성중심소에 참조하는 동일화 연산작용은 일어나지 않고 외재적으로 질적 한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외재적 형상화formatage externe라 한다.

동사영역에서 살펴보면 'saluer'와 같은 어휘가 가지고 있는 조작적, 형식적 개념이다. 즉 한 번, 두 번 인사하지만 그 인사하는 과정을 받아 질적으로 변하는 실체는 없다. 한편, 한 동사가 내재적으로는 내포하지 않지만 시·공간적 한정작용이 사행의 개념적인 한정작용을 양립시켜 가져올 수 있으면 밀집형의 특징을 갖는다.

다음의 두 언술을 비교해 보자.

Il a lu un livre pendant une heure.

Il a lu un livre en une heure.

첫 번째 언술에서 lire는 밀집형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하면 이 언술은 “나는 단지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었지,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는지(강독의 상황적 출현소 구축) 안 읽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때의 복합과거는 단지 과거의 지나간 사건만을 나타내는 ‘담화에서의 단절시제’라는 상적 가치를 갖게 됨을 알게 된다.

한편 두 번째 언술에서는 강독의 양이 시·공간적 좌표결정에 의해서 (한 시간 동안) 질적인 절단이 있어 강독의 출현소 구축이 일어나서 이때 lire는 이산형으로 기능한 것이다.

여기서 복합과거는 ‘완료’라는 상적 가치를 갖게 됨을 알게 된다.³⁸⁾

38) Franckel은 이산형사행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L'ancrage spatio-temporel d'une notion traitée comme discrète est

Ⅲ. 비이산형

비이산형의 특징을 가진 개념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추상명사나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로, 한 어휘단위의 개념체 영역의 출현소의 구축이 순수히 질적으로만 한정되지, 양적 한정작용은 전적으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la bonté, la sagesse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비이산형 명사는 그 자체로서는 시·공간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적 출현소를 구축할 수 없고, 즉 양적 한정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

동사영역에서는 être+형용사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être heureux, Paul est heureux하면 행복이라는 하나의 양적인 상황적 출현소가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Paul이 행복한 속성을 가진 지주로서 기능하며 Paul에 행복이라는 속성이 부여됨을 알 수 있다.

다음 언술은 시간적인 양적 한정작용과 양립됨을 나타낸다.

Il a été insupportable toute la matinée.

toute la matinée는 개념적인 면에 어떤 한정작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의 시간적 한정작용을 도입한다.

위에서 살펴본 이산형, 밀집형, 비이산형의 개념을 QNT와 QLT의 관계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ndissociable d'un découpage notionnel quantitatif et qualitatif intrinsèque.》 즉, 사행의 주어로 인해 시·공간에 자리잡게 되는 비이산형compact사행의 경우에 비해 개념체 영역이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절단découpage됨으로써 사행이 시·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이산형discret의 사행이라는 것이다. (J.J. Franckel, 1989:43)

-한 어휘단위는 출현소의 양적 한정작용과 질적 한정작용이 분리되지 않고 일어날 때 이는 <이산형>으로 기능한다.

-한 어휘단위의 출현소의 양적 한정작용과 질적 한정작용이 외재적으로 일어날 때 이는 <밀집형>으로 기능한다.

-한 어휘단위는 개념체에 내재적인 순수한 질적 한정작용만이 있을 때 이는 <비이산형>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명사나 동사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사나 명사의 개념체영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조작적 개념으로써 이 개념체 영역은 구체적 언술의 구축이 있을 때 각 어휘가 갖고 있는 구조화 때문에 구속이 가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정작용과 그 어휘 단위의 언술에서의 통사적 기능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3.2. 완료의 문제

복합과거가 내포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된 완료상을 보다 상세하게 Franckel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면, 복합과거 형태의 동사가 지닌 사행이 오로지 특정한 시간성과의 관계에서 산출될 뿐만 아니라 주관성도 사행의 산출에 관계함을 보도록 한다. 이와 같이 주관성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과거의 완료상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법표지로서 나타나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2.1. 전형에의 동일화작용 Identification à un étalon³⁹⁾

다음의 두 언술을 고려해보자.

Voilà une jeune fille accomplie!

Un chat est un chat. Un parfum parfum pour une femme femme.

첫 번째 언술에서 <accomplie>란 《아가씨의 모델, 이상에 적합한 conforme au modèle, à l'idéal de la jeune fille》를 의미한다.

두 번째 언술에서 왼쪽에 위치한 명사는 양적이고, 상황적인 한정작용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명사는 왼쪽의 명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한정작용을 한다. 따라서 “여자다운 여자를 위한 진짜 향수다운 향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위의 두 예문은 사행의 한정작용을 구축하는 구성중심소 centre organisateur⁴⁰⁾의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Culioli는 <un parfum-parfum pour une femme-femme>의 예를 통해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하나의 표지는 하나의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작용들의 흔적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같은 표지도 사실은 상이한 작용에서 기인한 상이한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39) étalon은 To의 physio-culturel의 형태이다.

40) 개념체 영역의 차원에서 구성중심소는 속성 P의 <가장 완성되고, 가장 완벽한 것 la plus achevée et la plus parfaite>을 표현한다. 즉, 속성 P의 <가장 동질적인 전형 la plus homogène du Type>의 형태에 해당한다.(P. Péroz, 1992:66)

3.2.2. <행해진 것>과 <행할 것>간의 일치관계 *Conformité entre le <fait> et le <à faire>*

사행구축의 주관적 원천에 의한 사행의 유효화작용은 시간성에 의한 사행구축이전에 행해질 수도 있고 혹은, 보다 나중에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발화자의 주관성 개입에 의한 유효화작용이 시간선 상의 사행구축보다 먼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한 것인데, 이 경우 그 사행은 완료라는 상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앞으로 ‘행해져야 할 것’과 시간선 상에 위치한 실제로 ‘행해진 것’ 사이의 일치로 인해 완료라는 상적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일치는 ‘완료된 임무 *mission accomplie*’의 형태로 나타난다. 언술 <il a enfin réussi à réparer ma voiture>는 질적인 고정성 *stabilisation qualitative*을 가져오는 시간적 구축과 주관적 구축간의 일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enfin*’과 같은 부사는 일치되었음을 표지해 준다. 부사표지 ‘*enfin*’으로 인해서 주어(*il*)의 ‘차를 고칠 예정’과 ‘실제로 차를 고침’이 일치되었음을 보여 주며 또 한편, 동사 ‘*réussir*’도 주체의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표지해 준다. 사실 이러한 일치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지는 복합과거이다. 복합과거는 P가 반드시 시간 차원에서 위치 결정되며 주관적 차원에서는 유효 가능한 것⁴¹⁾으로 구축됨을 나타내는데, 결국엔 <위치결정 된 것 *localisé*>에 <유효 가능한 것>이 흡수된다. 이러한 일치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성공 혹은 달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서, 이는 기대된 것, 예상된 것, 소망된 것, 의심되는 바⁴²⁾가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41) 유효 가능한 것, 다시 말해 유효화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이란 시간선상의 위치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이는 <목적성 *téléonomie*>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목적성이란 기대, 예상, 목표에 의해 가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목적성의 차원에서는 오직 하나의 가치만이 실제로 행해지고 다른 가치들은 여전히 가능한 상태로 남는다.

또한 다음의 언술을 살펴보자.

Ça y est, j'ai rédigé mon rapport.

이 언술은 «나의 레포트는 완성되었고 진짜 잘 쓰여졌다mon rapport est rédigé, bel et bien rédigé»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구성중심출현소 역할을 하는 지주들에 의해 질적으로 한정된 소위 결과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행의 시간적인 좌표결정작용이 일어남을 통해서 질적으로 한정된 것에 해당한다. 달리 말해서, 질적으로 안정되었음 즉, 임무가 완전히, 잘 수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때<보고문의 작성>은 완료된 임무에 해당한다. 즉, 완료의 개념은 완전히 끝나서 참으로 인정된 사행과 결부된다.

3.2.3. 추론관계의 문제Problème de relation de l'inférence

완료는 추론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가령 P와 Q가 추론관계에 있다면, P는 Q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됨을 의미하며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계에 입각한 완료상이 과연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다음의 언술을 통해 살펴보자.

Il a plu: la chaussée est mouillée!

위 언술의 경우, 사행 P는 <la chaussée est mouillée>를 정당화하는 기준으로서 구축된다. <il a plu>자체는 개념적으로 중심적이지 않으며 단지 존재가 서술화된다. 달리 말하면, 시간 차원에 <비>의 개념이 단지 도입되는 것이다.

이 때 개념적인 고정화 작용은 일어나지 않으며 전형 <진정한 의미의 비>에 대한 동일화작용 및 상이화작용에 의한 상대적인 가치가 구축된다. 이렇게 해서 <la chaussée est mouillée>가 구축된 것이다. 위의 언술에서, 'Il a plu'는 '차도가 축축히 젖어있다'는 언술행위의 순간에 행해진 발화자의 확인을 통하여 동기화된다.

또 발화자는 'Il ne pleut plus'와 'Il y a des traces de pluie.'라는 사실을 동시에 환기시키고 있다. 바로 '차도가 축축히 젖어있다.'라는 확실한 사실에 입각해서 사행 pleuvoir의 위치가 결정되며, 사건 'pleuvoir'의 발생이 '사실vrai' 또는 '사실임직한vraisemblable'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la chaussée est mouillée.'를 통하여 그 사건이 확인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vraie pluie'가 관계한다는 이중의 의미에서 'il a plu'는 사실vrai이 되는 것이다.

3.3. 사행의 외재성 Extensité du procès과 완료

이번에는 완료를 목적보어의 한정작용의 측면에서 고려해보자. Franckel은 사행의 양적 한정작용과 시간적 위치결정 작용이 서로 무관하게 행해질 때, 사행의 외재성을 구축하게 된다고 지적한다.⁴³⁾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든 두 쌍의 예문 (1a), (1b)와 (2a),(2b)를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 Dans le cas où une quantité du procès est déterminée de façon dissociée de son inscription dans le temps, on dira qu'il y a construction d'une extensité du procès.(J.J. Franckel, 1989:35)

(1a) Jean a marché pendant une heure. < marcher=/dense/>

(1b) *Jean a marché en une heure

(2a) J'ai lu ce livre pendant deux heures

(2b) J'ai lu ce livre en deux heures

위 언술들에서 사행의 출현소가 구축되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데, 이 때 사행의 출현소는 두 가지 연결된 방식에 의해 구축 된다:

①주관적 차원에서 유효 가능한 것의 구축과 시간차원에서의 위치결정 된 것 간의 일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②개념적인 분할작용découpage에 의해 사행의 양이 한정되는데, 이는 <en>과 <pendant>의 의미작용의 차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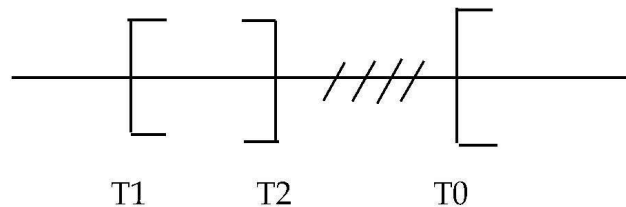
<en>은 사행의 한정된 양을 구축하지만, 이때의 목적보어의 한정작용은 시간적인 위치결정작용과 무관하다. 즉, <en>과 결합한 사행은 달성해야 할 사행의 양이 완수되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pendant>과 결합한 사행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단지 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간부류에서의 사행의 양화작용에 의한 것이다. 이때의 사행의 양화작용은 시간적 위치결정작용과 무관하지 않고, 출현소를 위치결정하는 순간 t의 양을 <전형étalon>에 비추어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en>은 완수 사행과, <pendant>은 미완수 사행과 잘 양립한다. Paillard는 완수성을 양화작용의 각각 다른 형태로 보고 있다. 완수 사행은 개념적 차원에서만 양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 미완수 사행은 시간적 차원과 개념적 차원 모두에서 양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3.4. 결과적 상태Etat résultat와 완료

결과적 상태를 완료의 개념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Culioli에 따르면 결과적 상태의 형식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닫힘의 보어는 열림이다. (...)오른쪽의 닫힌 구간은 열려 있고 인접해 있다. 결과적 상태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구간이다. 만약 이 상태가 역행하지 않는다면 표상이 왼쪽으로 경계되어진다. 그러나 무한히 왼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꺾이 깨지면 만약 그것이 다시 복원되거나 수리될 수 없다면 깨진 상태 그대로 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경계가 없는 어떤 구간에 대한 직관적 정의가 되고 만다.⁴⁴⁾

이를 구간 체계로 표현해 보자.



[도식3]

그런데 Franckel은 완료 혹은 복합과거에 대해 논하면서 결과적 상태보다는

44) (...) le complémentaire [du fermé] est un ouvert, (...)l'intervalle à droite du fermé est ouvert et adjacent. C'est cet intervalle ouvert que l'on appelle <état résultant>. Si cet état n'est pas réversible, on voit que l'intervalle qui le représente est borné à gauche mais peut être parcouru indéfiniment à droite (une fois qu'une tasse est cassé, si elle n'est ni réparable ni réparée, elle reste cassée). Or ceci est la définition intuitive d'un intervalle non borné.
(A. Culioli, 1978:188)

<acquis de changement d'état>⁴⁵⁾라는 용어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Denis Creissels는 être+participe passé시퀀스에 대한 분석에서 완료와 결과적 형태 사이의 동음이의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être+parti를 동반할 수 있는 시간보어를 살펴본다면 문맥에 따라 그것이 복합과거를 수반하거나 결과적인 형태를 수반하는 시간보어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a. Il est parti il y a trois jours (... et il est rentré ce matin)

(복합과거: 시간보어는 앞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킨다)

b. Il est parti depuis trois jours(*... et il est rentré ce matin)

(결과상: 시간보어는 엄격하게 실제 사건의 처음을 가리킨다)

c. Il est encore parti.

(두 가지로 해석 가능:

-복합과거: il est parti à nouveau, il est parti une fois de plus.

-결과상: il reste absent, il n'est pas encore revenu.)

따라서 partir가 결과의 형태를 만드는 불어 동사를 구성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결과적 형태가 완료의 동음이의라는 것 또한 논리적이다. 이 동음이의가 être 조동사를 가지고 완료를 이루는 자동사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예를 들어 être venu는 다만 완료의 전형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사실 *Il est venu depuis trois jours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Il est encore venu는 Il est venu une fois de plus, Il n'est pas encore reparti 로만 이해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partir와는 다른 venir는

45) 이 용어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 언술행위주체가 획득한(결과적) 상태> 정도가 된다.

결과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Il est venu는 따라서 복합과거로만 표현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Vogüé는 사행이 완료되는 바로 그 지점을 완료의 경계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결과적 상태를 설명하기 기본개념이다. 완료의 경계의 왼편에서는 사행이 단지 확인되고, 오른편에서는 이미 실행된 사행의 유효화작용이 일어난다. 따라서 완료가 이루어진 이후의 결과적 상태는 일종의 <속성>처럼 이해되며, 사행이 <구체화되는>과정 및 양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언술 <elle a cassé deux assiettes>에서 결과적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완료의 경계에 달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상태 <deux assiettes sont cassées>에는 우선 접시가 깨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후로도 접시가 깨져 있는 결과적 상태가 유지됨으로서 그 사실이 유효화되는 과정의 변화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 상태는 사행이 완료의 경계를 넘어서 왼편으로부터 오른편으로 이동한 것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미완수 사행과 완수 사행의 개념이 언어학자마다 정의 방식이 다르고 그 구분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었다. 사행이 종결점에 이르지 못한 채 그 진행과정에서 차단되었을 경우에는 미완수 사행을, 사행이 종결점에 달해서 그 진행이 중단되었을 때는 완수 사행을 고려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완료의 개념을 사행의 양적·질적 한정작용과 결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들에 접근해 보았다. 그 결과 가령, 결과적 상태는 사행이 단지 완료된 이후에 그 완료된 상태의 유효화 과정이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IV. 결론

전통문법이나 구조주의 문법에서 불어 과거시제 중 복합과거가 나타내는 대표적 시상치로 규정한 완료개념은, 말하는 순간에 사행이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전통문법에 있어서 시제와 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복합과거와 반과거는 완성/미완성이라는 상적 가치의 대립으로 기술되고 있다.

화자의 주관성을 문제 삼는 언술행위이론의 관점에서, 완료의 개념을 단지 사건의 종결 또는 지나간 사실과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 복합과거의 첫 번째 가치로 꼽혀온 '완료'라는 개념이, 화자의 주관성을 중시하는 언술행위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는 Franckel의 시각에서는 달리 해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완료'라는 개념은 주관적으로 설정된 한 모델에의 일치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불어의 개념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그것을 오직 시간성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함으로써 '완료'와 '결과로서의 상태'등의 시상치만을 추출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이 지닌 한계를 미약하게나마 드러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는,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언술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의 현재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만이 산출이 가능한 복합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자의 현재성이 내재된, 화자의 주관성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간과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술행위이론에 있어서의 상의 범주는 시간축 상의 순간들의 부류와 술어로부터 추출한 개념체 영역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해 구축

된 것이라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ulioli의 개념체 영역이라는 기술적, 도구적 개념을 도입해 완료의 의미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어의 시제 연구를 시제, 상, 사행의 유형의 세 가지 영역에만 한정해서는 부족하고 보충적으로 이들 영역간의 연접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 범주의 문제는 시간의 영역(순간부류)과 더불어 서술관계의 영역이라는 두 가지 큰 영역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Franckel을 통해 시간성 뿐 만 아니라 주관성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완료상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첫 째는 전형에의 동일화 작용Identification à un étalon이고 두 번째는 <행해진 것>과 <행할 것>간의 일치관계Conformité entre le <fait> et le <à faire>이며 세 번째는 추론관계Problème de relation de l'inférence에 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완료를 목적보어의 한정작용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으며 Franckel은 사행의 양적한정작용과 시간적 위치결정작용이 서로 무관하게 행해질 때, 사행의 외재성Extensité du procès을 구축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불어의 '완료'에 관한 연구가 시제, 상, 사행의 유형의 세 가지 영역에만 한정되어 비교분석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과 이 같은 문제점을 Franckel이 보다 명확하게 여러 이론들을 통해 제시했다는 사실은 언어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BENVENISTE, E., 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Paris, Gallimard.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LIOLI, A., 1979, 《Valeurs modales et opérations énonciatives》, Modèles linguistiques, Tome I , fascicule 2, Paris, PUF, pp. 135-155.
- _____. 1990, 《La linguistique: de l'empirique au formel》, in Pour une linguistique de l'énonciation, Opérations et représentations , Tome 1, Ophrys, pp. 9-46.
- CREISSELS, D., 2000, 《L'emploi résultatif de être + participe passé en français》, Cahiers Chronos 6, pp. 133-142.
- DE SWART, H., 2001, 《Contraintes aspectuelles et réinterprétation contextuelle》, Sémiotiques 9, pp. 89-115.
- DE VOGÜÉ, S., 1987, 《Aspect: Construction d'occurrences》, T.A. informations 1, Univ. de Paris VII.
- _____. 1995, 《L'effet Aoristique》, Langues et langage, Problèmes de raisonnement en linguistique, Mélanges offerts à Antoine Culioli,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P. 247-259.
- RIDEOUT, D.L., 2002, 《L'opposition perfectif/ imperfectif dans le passé français》, Cahiers chronos 9, Amsterdam-New York, Rodopi, pp. 15-29.
- FRANCKEL, J.J., 1986, 《Modes de construction de l'accompli en français》, in Aspects, modalité: problème de catégorisation grammaticale

- e, Collection ERA 642, Univ. de Paris VII, pp. 41-69.
- _____. 1989, Etude de quelques marqueurs aspectuels du français, Genève, Droz.
- _____. 1994, «Objet: construction et spécification d'occurrences», Le gré des langues 4, avril, pp. 29-43.
- FRANCKEL, J.J., LEBAUD, D., 1991, Les figures du sujet, Paris, Ophrys.
- FRANCKEL, J.J., PAILLARD, D., DE VOGÜÉ, S., 1987, «Modes de présence de l'autre», Les particules énonciatives en russe contemporain, vol.2, Collection ERA 642, Laboratoire de linguistique formelle, Univ. de Paris VII, pp. 11-37.
- GREIMAS, J., FONTANILLE, J., 1989, «L'opposition perfectif/imperfectif et la notion d'achèvement», Linguistique et Sémiotique I, Univ. de Limoges, pp. 49-62.
- GUILLAUME, G., 1970, Temps et Verbe, Paris, Champion.
- _____. 1984, Théorie des aspects, des modes et des temps, Paris, Champion.
- LE GOFFIC, P., 1986, «Que l'imparfait n'est pas un temps du passé», Points de vue sur l'imparfait, Centre d'études linguistiques de l'université de Caen, pp. 55-69.
- MAINGUENEAU, D., 1981, Approche de d'énonciation de linguistique française, Paris, Hachette.
- _____. 1990, L'énonciation en linguistique française, Paris, Hachette.
- MARTIN, R., 1971, Temps et Aspect, Paris, Klincksieck.
- MOLENDIJK, A., 1985, «Point référentiel et imparfait», Langue Française 67, pp. 78-94.

- _____. 1990, *Le passé simple et l'imparfait: une approche reichenbacenne*, Amsterdam/Atlanta, Rodopi.
- PAILLARD, D., 1992, 《Repérage: construction et spécification》, *La Théorie d'Antoine Culioli*, Paris, Ophrys, pp. 75-87.
- VENDLER, Z.,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NY),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INE, B., 2000, 《Pour une interprétation aspectuelle des tiroirs du passé》: deux insertions cotextuelles du zeugme[passé simple et imparfait], *Cahiers Chronos* 6, PP. 49-57.
- VET, C., 1980, *Temps, aspect et adverbess de temps de temps en français contemporain*, Genève, Droz.
- _____. 2001, 《Petite grammaire de l'Aktionsart et de l'aspect》, *Cahiers de Grammaire* 9, Univ. de Groningue, Département des Langues Romanes, PP. 1-15.
- VETTERS, C., 1993, 《Passé simple et imparfait: un couple mal assorti》, *Langue française* 100, PP. 17-25.
- _____. 1996, *Temps, aspect et narration*, Amsterdam-Atlanta, Rodopi.
- _____. 1998, 《Comment peut-on ressusciter le passé?》, *Variations sur le référence verbale*, *Cahiers Chronos* 3, pp. 109-123.
- VETTERS, C., DE MULDER, W., 2000, 《Passé simple et imparfait: contenus conceptuel et procédural》, *Cahiers Chronos* 6, pp.13-36.
- 이선경, 1994, 「A. Culioli의 좌표결정작용이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159-214.
- _____. 1999, 《반과거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 연구* 제 40집 겨울호, pp. 523-543.

R E S U M E

Etude sur la valeur de l'accompli et du passé en français

Park Yun-Mi

Section de la langue et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s

cours de maîtrise

Université féminine de Sung-Shin

On a remise en cause quelques perspectives de la grammaire traditionnelle, censée une théorie intuitive en y repérant quelques fautes car celle-ci est jugée a priori insuffisante pour le traitement systématique des problèmes compliqués relevant de la catégorie grammaticale de l'aspect.

Nous nous appuyons sur la théorie des opérations énonciatives de Culioli car sa théorie a pour but de dégager les invariants langagiers à travers l'observation de la langue naturelle. D'après Culioli, on doit toujours travailler sur le domaine notionnel, concept métalinguistique qui articule le plan notionnel et le plan situationnel de l'énonciation parce que, autour de ce domaine notionnel, les problèmes locaux reliés à la catégorie aspectuo-temporelle sont globalisés.

Contrairement à la grammaire traditionnelle, dans le deuxième chapitre, on commencera par la théorie de Franckel sur la valeur de l'accompli.

En prenant en compte les analyses de la théorie de Kamp & Rohrer et de Molendijk qui s'oppose à la grammaire traditionnelle, on montrera que le concept du parfait ne peut être classé seulement par temps, aspect, mode de procès.

Dans le troisième chapitre, pour une analyse de l'accompli, on distinguera celle qui est en relation avec les notions suivantes: aspect, mode de procès, accompli/inaccompli, perfectif/imperfectif et accomplissement/achèvement.

Ensuite, on présentera l'analyse du procès qui est en relation avec l'opération de quantification(QNT) et l'opération de qualification(QLT) de Culioli: Discret, Dense, Compact.

Nous avons examiné les rapports entre le problème de la termination du procès et les QNT et QLT du procès, parce que la relation entre ces deux problèmes peut expliquer le mieux la valeur de l'accompli. Avec l'état résultant, on en conclut que localisation et validation sont en relation d'adjacence, autrement dit, ils sont complémentaires de la classe d'instantants l'une à l'autre.

Et on montrera que "la valeur de l'accompli" est en relation avec la subjectivité. Franckel explique que la valeur de l'accompli est un <acquis de changement d'état>.

On peut distinguer trois cas.

- i) Identification à un étalon
- ii) Conformité entre le <fait> et le <à faire>
- iii) Problème de relation de l'inférence

Par conséquent, la valeur de l'accompli est indivisible de la construction du domaine notionnel du procès. La valeur de l'accompli vient des divers interactions entre le plan subjectif et celui temporel.